

4.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국가”

비잔틴 제국 시대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상호협조관계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의 관할권이 한계와 국가의 관할권이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많은 경우에 거의 불가능함이 밝혀진다. 국가와 교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둘의 관할권이 서로 엉키어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도, 비잔틴 시대의 교회와 국가는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사이 좋게 협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미 비잔틴 제국의 초기 시대부터 백성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교회의 백성이 또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국가의 우두머리는 교회의 우두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둘 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라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이 두 권위는 백성에 의해 선출된 인물들에 의해 백성의 권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두 권위는 모두, 비록 이론상으로는 하느님에 의해 세워진 권위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백성을 통해서만 실체를 갖게 되며, 백성을 통해서만 운영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지도자는 신도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정치적인 지도자 또한 드물지 않게 백성이나 군대에 의해 선출되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그리스도교 통치자라 할 수 있는 콘스탄티

노스 대제는 법을 제정하면서 그의 그리스도교인 고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교회와 국가는 단순히 서로 동떨어진 두 개의 독립된 권위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으며,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에 봉사하도록 하느님에 의해 주어진 권위라는 믿음을 법률화하였다.

이처럼 국가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후에 설립된 비잔틴 제국시대에는 백성이 세상의 몸이기도 하며 동시에 국가의 몸이기도 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쪽의 권위는 다른 한쪽의 권위의 도움 없이는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교회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진, 다시 말해서 몸은 국가이며 영혼은 교회인,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이처럼 비잔틴 시대에는 국가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가 동일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백성에게 봉사하여야 하였다. 국가와 교회는 일치하며 두 개의 속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은 교회의 성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

“당신의 국가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새로운 국가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비잔틴 제국의 팔레올로기 왕가가 문장으로 사용하였던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독수리의 몸은 백성을 상징하며 두 머리는 황제의 교회에 대한 권위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상징한다.

국가와 교회는 일치한다는 생각을 세계총대주교 안토니오니스 4세(1389~1397)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비잔틴 제국이 교회만을 가지고 있을 뿐 국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서로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협조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가 많이 발견된다. 또한 국가가 직접 선교사업을 담당하여, 그리스도교의 구원에 대해 가르쳤던 증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국가가 사제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서 사제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선교와 예배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최고통치자는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총대주교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백성들이 삼성송을 부르는 가운데 백성의 대표자인 총대주교에 의해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총대주교가 선출되면 그의 좌식은 황제에 의해 거행되었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결속되었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서, 성 소피아성당 안에서 총대주교가 새로 선출된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바로 전에 황제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다음과 같은 선서문을 들 수 있다.

“짐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과 일곱 차례에 걸친 공의회와 지역공의회의 조항들을 지킬 것을 고백하노라. …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의 참되고 충실한 종이자 자녀로서 남아 있을 것이며, 교회의 수호자가 될 것이며, 교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보복할 것이며,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울 것이며… 모든 이에게 진리와 정의를 분배할 것을 약속하노라. 또한 거룩한 교부들이 물리치고 저주한 것들을 짐 또한 물리치고 저주하며, 거룩한 신앙신조를 온 생각과 영혼과 마음을 다 바쳐 믿노라.”

비잔틴 시대에는 황제가 자신에게 선교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교회 바깥일들의 주교”라고 부른 것도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황제는 국고의 자금으로 공의회를 소집하였으며, 자신이 회의의 의장직을 맡아 자유로운 토론이 행해지도록 하였으며, 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을 법률화하여, “공의회의 조항들이 영원히 변경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국가가 교회에 경제적인 지원

을 하고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곳곳에 성당과 기도원과 수도원을 건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교회의 사업을 도왔다. 이 의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유스티노스 황제가 국고의 자금으로 건축한 성 소피아성당이다.

한편 교회는 국가에게 공의회 결정사항들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의회 결정사항은 국가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정치적인 합법성을 띄게 되었다. 황제는 교회의 일원이며 교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뇌라는 사상 때문에, 공의회가 소집되면 공의회에 참석한 전원은 황제에게, “대사 제이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인사를 바쳤다. 이 인사는 공공예식에 황제가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항상 왕에게 바쳐졌다.